말없이 자비 베푸는 것 참사랑

☞ 17면에서 계속

고통을 면해주면서, 고통을 면해주면 스스로 편안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자비예요. 사랑이라는 말을 입술에 붙여 가지고 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못 되죠. 그건 사랑이 아니라 변덕쟁이들이 하는 거라고 할 수밖에 없죠. 금방 사랑한다 그러고도 남편이든 아내든 길게 병을 앓게 되면 너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생활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입으로, 말로 하지 마십시다. 진정 말없이 행으로써 자비를 베푸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생활 속에서 그대로 여러분 마음 속에 자부처가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나부터 알아야 일체제불의 마음을 송

일체만물의 생명이 佛 뜻으로 통하는 것이 敎

두리째, 한 찰나에 들고 한 찰나에 나는 도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그대로 계신가요? 그대로 안 계시기 때문에 부처죠? 여래고요. 여러분의 집이 헐어지면 누가 고칩니까? 집 주인이 고치죠? 타인이 고쳐주는 법 없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마음의 집과 같은 겁니다. 모두가 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으

마음으로 잘못된 것 마음으로 고쳐야

로 진정코 맡겨놓을 때 바로 마음을 통해서 대뇌를 통해서 중뇌에서 측정을 내려서 사대로 통신이 되는 겁니다. 통신이 되면은 집을 고치는데 모자라는 데는 보태가면서 서로서로 작용을 하게 되죠. 몸도 내 몸입니까? 중생들의 집합소죠. 그러니 불교라는 단어가 얼마만큼 어마어마한지, 크기로는 이 세상을 다 덮고도 남고, 작기로는 좁쌀, 아니 먼지 한 알갱이만도 못하다 이겁니다. 먼지 한 알갱이에 우주대천세계가 다 들어가고도 남는 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절에 가서 스님들더러 잔뜩 차려놓고 재를 지내달라고 하지 마세요. 조상들이 들어와서 뭘 보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되면 돈 얼마 들여서 상 차려 놓은 것만 알아요. 그래가지고서야 어디 천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 마음공부를 하면 조상들이 그 마음 속에 쳐 들어가서 우주 삼라만상이 툭 터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벽도 없고 봇장도 없고 문도 없고, 들어갈 문 나올 문도 없으니 자유스러운 거죠. 아, 그러니 그 자리에서 찰나에 그냥 천도가 되는 거지 뭐가 또 따로 있습니까?

예전에 어느 선지식께서 누가 시식을 해달라고 돈을 가져왔는데 그 돈을 가지고 나가서 어려운 사람에게 방이래도 하나 얻으라고 주시고는 설렁설렁 오시니까 재를 지내달라고 한 사람이 천도 안 시켜준다고 야단법석이지 뭡니까. 그러니까 천도 안 시켰다고 생각하거든 이 돈 도로 가져가라고 했다는 얘기가 있죠. 나도 그 짓 잘 했으니까요. 허허허. 그러니까 사람은 한생각에, 한 찰나에 우주 천지를 돌고도 남음이 있어요. 떡 하나를 해놓고 천도를 시켜도 이 세상 만물만생, 죽은 세상 산 세상 다 먹고, 일체제불이 다 받고도 그 떡 하나는 되 남았어요. 되 남아요. 얼마나 훌륭한 법입니까! 얼마나 광대무변한 법입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천 오백 년 전에 가신 게 아니고, 오신 것도 없고 가신 것도 없이 영원히 지금도 살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부처님의 씨앗이에요. 종자예요! 부처님의 종자하고 여러분의 종자하고 다른 겁니까? 깨 씨 하나를 심어서 씨를 받았다가 또 심으니까 무수한 깨 씨가 나오니까 다 똑 같애요. 허허허.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좀더 발전해야 하고, 창조력을 길러야 하며, 현재에 생활하는 것이 심성과학이며, 또 심성의학이며, 60% 모자라는 거는 스스로 채워서 집을 고쳐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집을 고쳐 가지고 다니면 될 것 아닙니까? 왜 내 집을 남더러 고쳐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뼈가 어디 부러졌을 때는 의사를 불러서 이어 달라고 하지만, 내 집이 안으로 곪아터지고 안으로 잘못된 거는 주인이 고쳐야죠.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내가 그래서 어떤 때는 싱긋이 웃고 그냥 돌아설 때가 있죠. 좋아서요. "스님,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살았습니다." 이럴 때, 또 부부지간에 헤어질 단계까지 갔다가도 "저희 지금 행복하게 삽니다." 이럴 때 좋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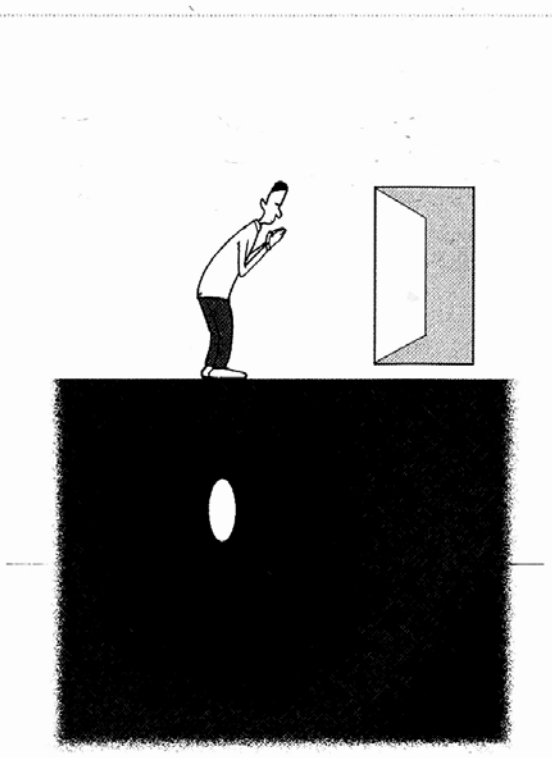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한마음 찰라에 우주 돌고 남아

불법 영원 … 우리가 부처님 씨앗

웃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내가 그런 게 아냐. 당신의 전깃줄하고 내 전깃줄하고 만났기 때문에 불이 들어왔을 뿐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과 · 업보 얽히고 설켜

내 말이 거짓말입니까? 부처님의 법은 이렇게 광대무변하고 생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내가 마음먹는 대로 해결이 될 수 있건만 모두 유전성과 영계성, 업보성, 세균성, 인과성에 얽히고 설켜 가지고 한 치도 마음을 너그럽게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제 앞으로는 마음을 너그럽게 낼 수 있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가정에서 부모 자식지간에도 그렇고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어떠한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상대를 나무라지 말고 내 탓으로 돌리고 내 주인공 뿌리에 맡기세요. 남편의 뿌리, 아내의 뿌리, 부모 자식의 뿌리가 모두 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력이 둘이 아닙니다. 우리는 용도에 따라서 전력을 끌어쓸 뿐입니다. 여러분도 가정에 어떠한 일이 생기면 끌어쓰십시오. 전력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야 지금 나쁜 짓을 하는 청소년들을 좀 착하게 변화시킬 수 있고 또 나라도 공덕이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비유하더라도 아주 일등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고, 배출할 수 있도록 정신계를 길러야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1: 법문 중에 이미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쭙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불교에서는 몸이 아프거나 하면 기도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자기 자신 본 마음자리에 관해라 그러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해주시면 여기 오신 많은 불자님이 더 정확히 알 것 같습니다.

▲스님: 그 말을 또 해달라구요? 하하하. 그래서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꾸 나오거든요. 바로 내 영혼의 근본과 부모의 정자 난자를 빌어서 내가 형성돼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나와가지고 과거에 산 것 대로 입력이 돼서 현실에 나오는데 화가 나도 자기한테서 나오는 거고 행복해도 자기한테서 나오는 거죠. 딴 데서 나오는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하면 감사하다고 놓고, 행복하지 못하면 마음을 돌려서 되놓고 관하는 겁니다. 진실로 되놓으면 그대로 실행이 되니까요. 실행이 돼 나가는 반면에 우리가 주고받는 사이 없이 주고받게 되고 가고 옴이 없이 찰나찰나 가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는 지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어렵지 않은 사람은 병원에 가기도 쉽겠지만, 돈 한푼이 없어서 병원에 갈 수가 없는 사람이 하혈을 한다면, 자식들은 올망졸망한데 돈 한푼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랬을 때 여러 말이 필요하지 않겠죠? '알았어!' 그러면 되지. 근데 알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무엇인가? 알았다고 하는 건 내가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이니까 더 지극할 테죠.

여러분! 한 번 접해 보지도 않았던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해 드릴까 하는 마음에서 여러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선해야 할 건 개선하고, 마음 속에 들은 의식들도 개혁을 해서 자유인이 되도록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내 마음을 발전을 못 한다면 한치도 자유스럽게 살수가 없습니다.

그 도리를 완전히 알게 되면은 부처님 형상이 진짜 부처님으로 보입니다. 부처님 몸이 내 몸이요, 부처님 형상이 내 형상이요, 부처님 마음이 내 마음이요, 부처님 생명이 내 생명으로 보입니다. 공부를 다 하면 진짜 부처님으로 보입니다. 그때는 진짜 부처님을 압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체 만물도 다 은혜를 갚기 위해서 모두 스승으로 보입니다. 스승으로 보이는 일체 만물에게 정법으로서 법을 설해주어야, 여기 앉아있는 분들만 듣는 게 아닙니다. 오늘 천도하신 분들도 여기 잔뜩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사람들도 잔뜩 있습니다. 여러분은 육안으로는 보실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이 묘하고 광대하기 때문에 부처님을 모셔서 점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앉아 계신다 해도 못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이 도리를 알아야 합니다.

마음 자리에 관하라 하셨는데

나부터 먼저 알아야 하겠기에 과거에 살던 나를 잡고 들어가야 문 없는 문을 접하게 되고 죽은 세상을 다 알게 되는 거죠. 죽은 세상을 다 알아야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한치도 마음대로 못살게 됩니다. 마음대로 하고 살려면은 반찬가게를 노리는 고양이처럼 내면의 자기 뿌리 주인공을 진짜로 믿고 모든 걸 일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만이 평등공법의 문 없는 문을 찰나찰나 들고 나면서 이 세상을 자유스럽게 살 수 있습니다.

※위 법문은 1994년 5월 29일 제주대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www.hbtv.org나 한마음방송국)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불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비구니 폭력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일찍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뭇생명의 조화로운 삶을 가르치셨고, 평생을 몸으로써 실천해오셨다. 우리 비구니는 그 분의 삶을 지고지순한 가치로 삼고 살겠다는 서원을 이룩하고자 정진하고 있으며, 수행자임을 참으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우리는 지난 2월 18일, '북한산 살리기 정진도량'인 송추 원각사 입구에서 이루어진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 비구니 3명에 대한 LG건설의 폭력 사태에 대해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북한산에 깃든 뭇생명과 수행도량을 온전히 지키기 위한 비구니스님들의 간절한 서원을 폭력으로써 짓밟으려 했다는 데 대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오십여 명의 장정들이 들이닥쳐 기도 중인 스님들을 법당에서 끌어내고, 팔다리를 나누어 잡고 500미터를 끌고 다니다가, 돌무더기에 팽개쳐서 6주간의 부상을 입혔다. 또 폭행의 와중에서 비구니스님에게 가해진, 차마 글로 옮기기에도 저급한 폭언을 행해 폭행을 당한 스님들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상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커다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더욱이 사건 발생 한달이 지나도록 LG건설의 공식적인 참회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없다는 것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의 양식마저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행위이다. 우리는 수행자의 자세로 그들에게 사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만한 조치나 공식적인 사과조차 하지 않는 점을 크게 우려하며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비구니회는 "위법망구"의 일념으로 이후의 상황을 항상 주시할 것이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북한산국립공원과 수락산, 불암산을 관통하는 노선이 취소될 때까지 기도정진과 관통도로 저지 운동을 함께 해나갈 것을 부처님 앞에 서원한다.

우리의 요구

1. LG그룹과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는 비구니스님들에 가한 무자비한 폭력에 대해 4대 일간지에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2. LG그룹과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는 폭력사태가 일어난 북한산국립공원, 수락산, 불암산 관통노선 전체에 대한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3. 정부는 이번 폭력 사태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한 북한산 관통노선을 즉각 철회하라.
4.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일천만 불자와 전국 여성성직자와 연계해서 모든 LG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북한산 관통노선의 철회를 위해 산문폐쇄도 불사할 것임을 밝혀둔다.

불기 2546(2002)년 3월 21일

대한불교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대한불교 조계종 비구니선문회